

김학범 감독 “손흥민도 와일드카드 11명 후보에 있다”

6월 평가전에 올림픽 성적 달려...정부 협조 당부
“조별리그 한국·온두라스·루마니아 3파전 될 것”

2020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최고 성적에 도전하는 김학범 감독의 최종 엔트리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토트넘)까지 와일드카드 후보군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학범 감독은 28일 오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이 끝나고 1년 3개월 동안 선수들을 완전체로 소집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 6월 A매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와일드카드에 대해 말하지만, 지금 50명 예비 명단에 11명이 들어 있다. 손흥민부터 골키퍼까지 전 포지션에 다 들어갔다”면서 “다만 선정이 어려운 건 6월에 모든 선수를 모아 재평가를 해야 어느 포지션에 와일드카드를 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6월 A매치 기간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에서 국내에서 열린다. 또 6월21일부터 7월11일까지 AFC 챔피언스리그가 진행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은 물론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소속 구단들과의 협의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이번만은 아니다.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른 2주간의 격리 평가전 상대팀의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 문제를 풀어야 올림픽 본선을 앞두고 최종 담금질을 할 수 있다.

김 감독은 “6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A매치 기간이 겹쳐 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잘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발탁 등 다음 순서를 밟는데,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호소했다.

월드컵과 달리 올림픽은 23세 이하

(U-23) 선수들이 나서는 연령별 대회다. 이번 도쿄대회는 대회가 1년 미뤄지면서 24세 이하 선수까지 참가할 수 있다.

연령에 상관없이 3명을 뽑을 수 있는 ‘와일드카드’ 제도도 있다. 팀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 올림픽 성적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올림픽 사상 첫 메달을 땀던 2012 런던올림픽에선 박주영, 김창수, 정성룡이 와일드카드 발탁돼 동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또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선 손흥민과 석현준, 장현수가 뽑힌 바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서 와일드카드 발탁된 김 감독은 “황의조도 후보군에 있다. 본인이 먼저 합류 의사를 밝혔는데,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솔직히 다른 자리가 더 급할 수도 있다. 와일드카드는 정말 필요한 자리에 써야한다. 고맙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와일드카드 선발에서 병역 혜택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병역과 관계없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려면 병역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 필요한 선수라면 누구든 뽑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미 병역 혜택이 주어진 손흥민, 황의조 등이 이번 올림픽 와일드카드 예비 후보 11명에 든 이유다.

최근 프로축구 K리그1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뉴 페이스들의 발탁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오늘 50인 예비 명단을 냈다면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두 달 전 70여명의 엔트리를 제출했다. 나도 바꾸고 싶지만, 그 안에서만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국(FIFA랭킹 39위)은 지난 21일 스위스 취리히의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조추첨 결과 뉴질랜드(122위), 온두라스(67위), 루마니아(43위)와 B조에 포함됐다. 멕시코, 프랑스, 이집트 등 강호들을 피한 최상위 조 편성이다.

김학범 감독은 7월22일 오후 5시 가시마의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



김학범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갖는다.

이어 25일 오후 8시 같은 장소에서 루마니아와 2차전을 한 뒤 28일 오후 5시30분 요코하마의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에서 온두라스와 최종전을 치른다.

김 감독은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와 온두라스, 루마니아다. 뉴질랜드가 좋은 팀이라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면서 “특히 루마니

아는 프랑스를 떨어트릴 뻔한 팀이다. 온두라스는 북중미 예선에서 황금멤버라는 미국을 탈락시켰다”고 경계했다.

이어 “아마도 3팀이 경우의 수까지 따져야 할지 모른다”면서 “하지만 어차피 8강에서 옆 조의 멕시코, 프랑스 등을 만나야 한다. 어느 팀이든 우리가 해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뉴스



지난 4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1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 대 SSG 랜더스 경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닮아 화제가 된 캐릭터 ‘제이릴라’가 정 부회장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구단주들 야구장 출동 달아오른 프로야구 ‘장의 전쟁’

선을 넘나드는 도발에, 거침없는 저격까지. 프로야구 구단주들의 장외 경쟁이 예상을 넘어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이번 시즌 KBO리그 이슈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오너 리더십’이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6년 만에 야구장 나들이에 나서 “대세”를 확인시켰다.

신 회장은 지난 27일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맞대결이 열린 잠실 구장을 찾았다. 신 회장의

구단주 정용진 부회장은 개막 전부터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종종 팬들과 야구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팀 이름 등이 공개되지 않았던 지난 2월 말에도 클럽하우스에서 구단명 후보군과 팀 컬러 등을 밝혔다.

구단주가 직접 팬들과 스킨십을 하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창단 첫 시즌을 맞는 SSG는 정 부회장의 지원 사격에 제대로 이슈 물의를 했다.

정 부회장의 이색적인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SSG의 시즌

을 했다. “야구를 좋아했다면 지금 까지 야구장에 그렇게 오지 않을 수는 없다”며 “내가 도발하니까 그제야 야구장에 온 것”이라고 신 회장을 겨냥한 발언을 펼쳤다.

“내가 도발하자 롯데가 불쾌한 것 같은데, 그렇게 불쾌할 때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 롯데를 계속 불쾌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야구를 하게 만들겠다”는 수위를 오가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그야말로 KBO리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단주의 등장인 셈이다. 구단주가 직접 나서 ‘라이벌 구도’를 확실히 하면서 선수단에는 자극을, 팬들에게는 결집을 바랄 수 있게 됐다. 이제 SSG와 롯데의 맞대결은 매 경기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 부회장이 연일 광폭 행보로 주목을 받자 타 구단 구단주들도 경쟁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다.

지난해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일군 NC 다이노스도 구단주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리더십이 부각된 팀이다. 김 대표는 자사 게임 광고에 출연하며 ‘택진이 행’이라는 친근한 별명도 갖고 있다. 지난 시즌 막판 NC의 정규리그 우승 확정을 보기 위해 약 일주일간 팀의 원정경기까지 따라다녔던 김 대표는 “한국시리즈 우승 후 ‘집합검 세리머니’를 함께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 시즌에는 구단 영상이서 구장 관중석 테이블을 걸레질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끈 바 있다.

뉴스

신동빈 롯데 구단주, 지난 27일 6년만에 LG-롯데전 방문 정용진 SSG 구단주 “동빈이 형, 내가 도발하니 야구장 와” 구단주 직접 나서 ‘라이벌 구도’·선수단에 자극·팬들 결집

야구장 방문은 2015년 9월11일 사직 삼성 라이온즈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예방과 선수단의 집중을 위해 경기 전 선수들을 따로 만나지 않았지만 롯데 구단 점퍼와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경기 후엔 선수단의 집으로 한우 정육세트를 전달했다.

구단주들의 야구 전장에 앞장서고 있는 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다.

SK 와이번스를 인수, 올해 처음 KBO리그에 뛰어들던 SSG 랜더스의

개막전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그는 이날 경기에서 맹활약한 최정과 최주환에게 ‘용진이 형 상’을 주기도 했다.

단순히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라이벌’ 팀을 향한 적극적인 도발에도 거리낌이 없다.

이미 개막 전 클럽 하우스에서 ‘유평 라이벌’인 롯데를 향해 ‘개네(롯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쫓아와야 할 것’이라고 선제 공격을 했다.

신 회장이 잠실 구장에서 롯데 경기를 관람한 것을 두고도 ‘저격

을 했다. “야구를 좋아했다면 지금 까지 야구장에 그렇게 오지 않을 수는 없다”며 “내가 도발하니까 그제야 야구장에 온 것”이라고 신 회장을 겨냥한 발언을 펼쳤다.

“내가 도발하자 롯데가 불쾌한 것 같은데, 그렇게 불쾌할 때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 롯데를 계속 불쾌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야구를 하게 만들겠다”는 수위를 오가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그야말로 KBO리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단주의 등장인 셈이다. 구단주가 직접 나서 ‘라이벌 구도’를 확실히 하면서 선수단에는 자극을, 팬들에게는 결집을 바랄 수 있게 됐다. 이제 SSG와 롯데의 맞대결은 매 경기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 부회장이 연일 광폭 행보로 주목을 받자 타 구단 구단주들도 경쟁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다.

지난해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일군 NC 다이노스도 구단주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리더십이 부각된 팀이다. 김 대표는 자사 게임 광고에 출연하며 ‘택진이 행’이라는 친근한 별명도 갖고 있다. 지난 시즌 막판 NC의 정규리그 우승 확정을 보기 위해 약 일주일간 팀의 원정경기까지 따라다녔던 김 대표는 “한국시리즈 우승 후 ‘집합검 세리머니’를 함께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 시즌에는 구단 영상이서 구장 관중석 테이블을 걸레질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끈 바 있다.

뉴스

‘이닝 이터’ 뽐낸 양현종, 불펜 ‘키 맨’ 경쟁력 갖췄다

텍사스 감독 “이렇게 많은 이닝 소화한 것 나도 놀라워”



27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 뒤 인터뷰하는 양현종. (사진 =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 화상 기자회견 캡처)

첫 번째 관문은 넘어섰다. 이제 또 다른 경쟁의 장이 펼쳐진다.

양현종은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전에 구원 등판, 4⅓이닝 5피안타(1홈런) 1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메이저리그에 콜업, 바리크 입성의 꿈을 이룬 양현종은 데뷔전까지 소화했다.

양현종은 팀이 4-7로 뒤진 3회초 2사 2,3루 위기 때 선을 보였었다. 상대 4번 타자 앤서니 렌던을 2루수 뜬공으로 잡고 이닝을 정리한 그는 4, 5회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7타자 연속 베타행진을 이어가던 그는 6회 선두타자 오타니 쇼헤이에게 기습 번트 안타를 내주며 첫 출루를 허용했다.

계속된 6회 1사 1, 2루에서 제라드 웰시에게 중견수 킷을 넘어가는 적시 2루타를 맞아 첫 실점했다. 7회에는 첫 타자 호세 이글레시아스에게 슬라이더를 던졌다가 홈런을 맞았다.

일찌감치 경기 흐름을 내뒀던 텍사스는 결국 4-9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선발 투수 조던 라인즈(2⅓이닝 7실점) 보다 긴 이닝을 소화한 양현종이라는 소독을 얻을 수 있던 경기였다.

텍사스 마운드는 개막 직후부터 난조를 보였다.

이날 경기까지 텍사스의 팀 평균자책점은 4.71로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 28위다. 선발진 평균자책점은 4.29(18위)로 버티고 있지만, 구원진 평균자책점은 5.24(28위)로 치솟는다.

양현종이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불펜진의 틈을 비집고 바리크에서 자리를

를 잡을 수도 있던 의미다.

지난해까지 KBO리그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던 양현종에게 구원 투수는 다소 낮은 역할이다.

그러나 선발 투수로 오래 뛰었던 만큼 이닝 소화 능력은 뒤지지 않는다. 양현종이 텍사스와 계약했을 당시 현지 언론에서도 최근 7년 연속 170이닝 이상을 던진 양현종의 이닝 이터 면모에 주목한 바 있다.

이날처럼 선발 뒤에 나와 긴 이닝을 최소 실점으로 책임져주는 톱클러프의 역할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양현종의 바리크 데뷔전을 지켜본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도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서 잘 던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은 전혀 없었다. 스프링캠프에서 강한 타자를 상대해도 부담을 가지지 않았다”고 신뢰를 드러내면서 “양현종이 이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것은 나도 놀라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양현종이 앞으로 계속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날 4⅓이닝 2실점에도 호평을 받았던 건 바리크 데뷔전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참작됐다. ‘처음’이라는 긴장감과 압박감을 견뎌낸 다음에는 보다 완벽한 호투로 기량을 인정받아야 한다.

양현종은 “단순히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한 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주 던져서 팬, 구단, 선수들에게 좋은 선수를 기억에 남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뉴스

‘류현진, 몸상태 이상 없다’...내달 2일 등판 예정

선발 로테이션대로

자진 강판으로 야구팬들을 놀라게 한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결장 없이 정상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참리 몬토요 감독은 28일(한국시간) 화상 인터뷰에서 “류현진의 몸상태에 큰 이상이 없다.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고 선발 로테이션대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지난 26일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 3⅓이닝 3피안타 1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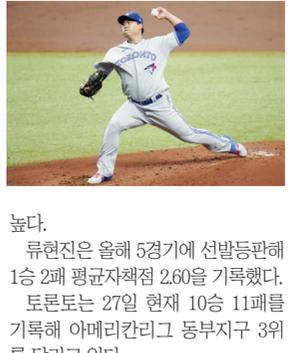
넷 5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기록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4회말 2사 1루에서 둔부 쪽에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갔다. 시즌 2승 달성도 실패했다.

당시 참리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이 교체 이후 잘 견고 있더라. 가벼운 부상이라 관측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류현진 역시 큰 부상이 아니라면서 예정대로 훈련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는 5월1일부터 애틀랜타와 브레이스와의 3연전을 치른다. 류현진은 5일 휴식 후 2일 등판할 가능성이



뉴스